

옛시는 왜 내 마음, 내 노래처럼 울릴까?

시인의 울음

안희진 지음

“잠시 서서 감상하는 단풍나무 숲(停車坐愛楓林晚)/ 물든 잎은 봄꽃보다 아름답구나.(霜葉紅於二月花)” 요즘과 같은 단풍철에 와닿는 두목의 시 ‘산행’이다.

흔히 중국은 ‘부부싸움도 한시로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한시가 생활속, 또는 외교무대에 쓰일 정도로 사랑받기 때문일 것이다. 일찌감치 문자를 가진 중국은 기록에 남달랐다. 짙막한 문장에 압운을 맞춰 세상살이의 희로애락을 담았다. 한시는 웅담샘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시내, 강을 이뤄 바다에 닿는 과정을 닮았다. “붓을 휘두르면 비바람이 몰아쳤고 시가 완성되면 귀신도 울었다.”(筆落驚風雨 詩成泣鬼神) ‘시성(詩聖)’이라 불렸던 당나라 시인 두보는 ‘적선(謫仙)’=하늘에서 귀양온 신선’ 이백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맹호연, 왕유, 이백, 두보, 백거이, 어현가... 등 쟁쟁한 시인을 배출한 당나라 시대는 한시의 바다였다.

안희진 단국대 중국어과 교수가 최근 중국 한시의 참맛을 알려주는 ‘시인의 울음’을 펴냈다. ‘한시, 폐부에서 나와 폐부를 울린다’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 대해 저자는 “중국의 옛 시와 노래들을 번역해서, 같은 나무에서 피고 지는 모든 생명의 아픔을 옛 사람들이 어떻게



청나라 학자 왕국유는 “시에에는 ‘내가 있는 정경’(有我之境)과 ‘내가 없는 정경’(無我之境)이 있다”고 말했다. ‘유아지경’은 시인의 감정이 시에 배어 있는 정경이고, ‘무아지경’은 시인의 감정이 안보이는 정경이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오늘날 책인 ‘죽간’(竹簡)을 이용한 공연 모습.

승화시켰는지 얘기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어려서 할아버지에게 전자문을 배운 게 평생 공부라 됐다. 이 책은 1부 시인의 노래, 2부 어부의 노래를 나눠 독자들이 다채로운 한시의 맛을 음미하도록 한다. 저자는 “시란 아름다운 울음”이라면서 한시를 ‘유아지경’과 ‘무아지경’이라는 말로 살펴본다. ‘유아지경’이란 각각의 꽃들이 외로워서 울고 허무해서 우는 정경을, 무아지경은 나와 남, 세상과 내가 연결돼 있음을 노래하는 정경이라고 설명한다. 백거이는 당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을 840자나 되는 ‘장한가’에 담았다. “...천지가 영원해도 끝은 있지만(天長地久有時盡)/ 이 슬픈 사랑의 한 끝이 없군요(此恨綿綿無絕期)”로 끝맺는 이 시는 서사와 서정을 결합시킨 장편시로 평가받는다. 어현가(본명 어유미)는 소녀 시인이다. “산 위로 두 눈 가득 맑은 봄 하늘(雪峰滿目放春晴)/ 선명한 초승달이 저만치 뜬다(歷歷銀鉤指下生)/ 여인이란 시구조자 몰래 가린 채(自恨羅衣掩詩句)/ 고개 들어 급제자들 부러워할 뿐.(學頭空羨榜中名)” 과거 급제자 명단 붙은 것을 보면서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신을 한스러워한다. 그러나 여제자를 죽인 죄로 27살에 형장의 이슬로 스러지고 만다. 이백은 이민족 부친과 한족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는 오늘날 호적개념인 ‘작관’(籍貫)이 없었고 당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산중에서 은거하는 미인과 대작하다’(山中與幽人對酌)라는 시에서 “...나는 취해 잠이 오네 그대는 가계(我醉欲眠卿且去)/ 내일 아침 다시 오게 가 야금 들고.(明朝有意抱琴來)” 시구는 도연명과 닮아 있다. 시와 해설을 읽다 보면 당대 시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 책에 실린 1000여 년 전의 옛 시들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대인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돌베개·1만8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공무원만이 희망인 나라...미래가 없는 한국사회의 민낯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오찬호 지음

4120명을 뽑는 2016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지원자 수는 22만 2650명이었다. 경쟁률은 54 대 1.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9급 지방직 공채시험의 경우 21만 2983명이 시험을 치면 20만 1624명이 떨어진다. ‘과하고 불공정한, 무엇보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불안한 청춘’들은 ‘공시생’이 돼 고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보이는 건 뿌연



미래 뿐이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적의 대학교’ 등을 펴낸 사회학자 오찬호의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민 자화상’은 공무원 열풍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 대한민국 보고서다. 저자는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의 집결지인 노량진에서 만난 공시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자가 2년간 42명의 ‘공시족’들과 만나 나눈 대화는 생생하고 절절하다. 책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경쟁의 논리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상대임을 증명한다.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개인의 불평등’ 앞에서 꿈을 꿀 수 없는 세대들, 오래되고 견고해진 온갖 편견이 난무하는 ‘과정의 불공정성’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 세대들이 왜 공시생이 되는 지 들여다본다. 특히 노량진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

의 모습을 세세히 보여주는 대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취업 경쟁에서 밀려난 명문대생, ‘지갑대생’ 출신이라는 불평등을 피하고 싶은 지방대 학생, 오십살도 안 돼 은퇴한 중년 등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노량진은 도시 속에 떠 있는 섬과 같다. 저자는 ‘공무원만이 희망’인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말한다. 누구나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을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보태야하고, ‘시민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스스로를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위즈덤하우스·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비범한 정신의 코드를 해킹하다=마인드벨리의 창업자 비센 락하야니가 앨론 머스크, 리처드 브랜슨, 아리아나 허핑턴, 켄 월버 등 전 세계를 이끄는 인물들을 200시간 이상 인터뷰해 얻어낸,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통합적 자기 혁신 시스템. 책은 각 부마다 일종의 진화를 논하고 있다. 각각의 진화를 통해 한 단계 새로운 수준에서 깨어 세상을 자각하고, 그 세상에 영향을 미칠 한 단계 새로운 수준의 능력을 갖게 된다.

<정신세계사·1만7000원> ▲쇼펜하우어 평전=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사상을 짚트게 한 ‘삶의 흔적들’을 되짚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적 관심사들의 다양한 갈래들을 탐구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특히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에 관한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확장시켰다. 책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진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의 삶 곳곳에 묻어 있는 ‘힐링 철학’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물이 있는 집·1만6000원> ▲나의 골드스타 전하기=명문대 대학원에서 연구 보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스물다섯 살 여성. 주인공은 지방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소설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꿈을 향해 살아가다. 실제로 소설가로서 불투명한 미래를 겪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저자의 모습이 투영된 자전적 소설이다. 저자는 좋은 스펙을 가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는 이 시대 청춘들에게 ‘또 다른 길’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한다. <광화문출판·1만3000원>



▲닥터 페미니스트 여자의 몸을 말하다=여성 전문 한의사 문현주가 들려주는 여자의 몸 이야기. 난임 치료 전문 한의사로 살다가 여성을 아프게 하는 궁극적 원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홀연히 떠난 영국 유학 기간 동안 의료인류학을 공부한 저자는 현재 인류 진화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사회적 환경에 바탕한 인류학적 관점으로 여자의 몸을 바라보는 글쓰기와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서유재·1만4000원> ▲스마트폰 노안=스마트폰이 불러온 질병, 스마트폰 노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청소년기 아이들의 노안을 예방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 건강을 지키는 일상의 실천 팁을 간단 명료하게 알려준다. 저자는 눈의 이상 말고도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 이 신종 질환의 확산을 그대로 두면 다른 건강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옥당·1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인물로 만나는 근대 이야기=근대사에 발자취를 남긴 역사 인물들의 활동과 사건을 통해 생생하고 정확하게 근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책. 흥선 대원군부터 최현배까지, 역사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 책을 읽다 보면 교과서 속의 지식은 물론 폭넓은 역사 배경이 저절로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다. <주니어김영사·1만원> ▲우리 땅 캠핑 여행=먹을거리에 따라, 지리적 특징에 따라 배낭을 메고 캠핑을 하며 돌아보는 우리나라 캠핑 지리 그림책. 캠핑 여행은 우리나라의 자연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여행 방법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책을 펼쳐놓고 우리나라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캠핑지를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캠핑 여행의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그린북·1만4000원> ▲슈퍼 히어로 우리 아빠=슈퍼히어로 아빠를 둔 산하의 가족을 통해 영웅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려준다. 슈퍼 히어로가



족이 겪게 되는 여러 상황과 슈퍼 히어로 아빠가 가진 고민들,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 알게 되는 이야기들,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고래가숨쉬는도서관·1만2000원> ▲훌륭한 이웃=지루할 정도로 조용했던 동네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서 소통으로 시끌벅적 즐거워지는 동네의 모습을 담은 그림책. 우당탕 공사 소리와 뿌연 먼지로 아파트는 조용할 날이 없지만, 딱딱했던 마을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함께하는 파스하고 행복한 일상이 펼쳐진다. <플라바람·1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팟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보성, 복내면 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87번지 외 5필지(81-1.4.5.6.7)
- 13만평중 1/5지분, 26000평
- 야산, 전기시설, 임로개설
- 매매-2억6000만원

화순, 동북면 임야

- 동북면 연월리 산195-2.7.8번지 29381평, 2차선 국도접함
- 번지내 1층건물 포함 (53평)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9억, 감정가 - 9억

북구, 청풍동 임야

- 광주 북구 청풍동 산272-1 2339평, 자연녹지지역
- 신촌마을 북서쪽에 위치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3500만원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
- 20층중 9층, 32평, 코너
- 전체율수리, 전망최고
- 주거겸 사무실, 시세 1억4000만원
- 매매 - 1억원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회사직거래 / H. 010-3605-5000

나주, 공산면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무안, 일로읍 잡종지

-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323-3
- 잡종지 1081평
- 옆 국유지 약700평 있음
- 공장등 용도 다양
- 매매 - 2억2000만원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이상)
- 매매 - 협의, 감정14억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 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보5천만원에 월250만 임대 가
- 매매 - 6억(조정가), 감정7억